

부천시지역 정책 해결에 '힘 실기'

경기도의회 정책추진단 부천 정책과제 현안점검

경기도의회 엄종현(민주당, 부천1) 의장과 의정정책추진단이 12일 부천시와 현장 정책 담당회를 열고 지역 정책과제 해결에 힘을 실었다.

엄종현 의장과 의정정책추진단은 이날 부천시청에서 부천시와 '부천시 현안 정책발굴 담당회'를 갖고, 부천시역 24개 정책과제 추진 및 부천시의 추가 건의 정책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엄 의장을 비롯해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민주당, 군포1) 공동단장과 황진희(민주당, 부천4) 교육기획위원장, 이선구(민주당, 부천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현(민주당, 부천8)·이재영(민주당, 부천3)·김광민(민주당, 부천5)·유경현(민주당, 부천7) 의원, 조용익 부천시장을 비롯한 부천시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했다.

엄 의장과 의정정책추진단은 부천시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굴한 부천시 정책과제의 개별 진행 현황을 확인하고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애로 사항을 살펴본 뒤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의회 엄종현 의장과 의정정책추진단은 12일 부천시청에서 부천시와 현장 정책 담당회를 열고 부천시역 24개 정책과제 추진 및 부천시의 추가 건의 정책 등을 논의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부천시역 골목상권, 작은 상가들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골목상권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하드웨어적인 정책들은 이미 많이 이뤄졌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지원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시민학습원 재건축,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조성 현안 등 여러 현안 사업이 있는데, 부천시가 도의원들과 상시 협의 체계를 갖춰 추진 동력을 확보했으면 한다"고 짚었다.

박상현 의원은 "도시재생은 기본적으로 주거단지를 바탕으로 하는데 노후화된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도시재생을 추진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

했다. 이재영 의원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필요성 또는 요구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부천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해 문화예술회관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여러 검토와 지원이 필요한데 의회와 긴밀하게 논의하며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담회에서는 부천시가 추가로 정책적 지원을 건의한 △웹툰융합센터 기반시설 구축 △시내·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6개 사업의 타당성 등도 함께 검토했다.

이날 엄 의장은 "의정정책추진단은

지역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아는 도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현안을 발굴하고 정책으로 연결해 도민 삶의 질을 높여자는 의미에서 시작됐다"며 "8명의 부천시역 의원님들과 부천시가 머리를 맞대 현안들을 풀어간다면 부천시의 더 큰 도약에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윤경 단장은 "의정정책추진단은 의정 협치 모델을 정립해 민생정책을 해결하자"는 엄 의장의 핵심사업"이라며 "오늘 함께 논의한 부천시 정책과제들을 비롯해 도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정책들을 실현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인창 기자

“시각장애인 위한 정책과 사업 필요해”

김대영 인천시의회 의원 현재 정책 전반적 점검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민주당, 비례·사진) 의원이 시각장애인들의 현재 정책을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나아갈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글날(10월9일)과 한글점자의 날(11월4일)을 맞아 최근 열린 제29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훈맹정음의 의미와 시각장애인 정



책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김 의원은 한글점자의 날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권장하고 점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정된 날임을 밝힌 후 박두성 선생이 만들어 오롯이 담아낸 6점식 점자체계 창안을 통해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들이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됐음을 소개했다. 이어 그는 시각장애인들의 현재 정책

을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나아갈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식당 내 키오스크 주문 불가, 대중교통 이용 시 출발·도착 안내 음성이 들리지 않는 점, 복지콜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 등 시각장애인들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인천지역 내 횡단보도 음성 안내 기기 점검, 보행 시간 음성 안내 기능 개선, 점자블록 점검 및 확대 설치, 장애인을 위한 키오스크 편의 기능 규정 마련,

복지콜을 비롯한 장애인 교통수단 대대적 개선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인천시의회를 비롯한 인천의 관공서 종사자들의 명함을 점자 명함으로 바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 두렵지 않고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는 도시, 우리 인천이 가장 앞장서 만들어 시민이 행복한 도시, 함께 만드는 포용 사회 인천을 만들어 보자"고 당부했다.

안종삼 기자

안산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의

제285회 임시회 16일 개최 저소득주민 지원 조례 관심

안산시의회가 제285회 임시회에서 총 9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심의한다.

조례안 발의에는 박은경·김진·최진·김유숙·이지화·현옥순·김재국 이대구 의원 등 총 8명이 참여했으며 의회는 16일부터 285회 임시회 상임위원

회를 열어 이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된다.

박은경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과 문화복지위원회의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다.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올해 3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절차 및 운영 등을 규정하는 조례안이며,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내용을 확대하고 조례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김진숙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 소관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면서 그 내용을 반영했다.

최진호 의원의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에서 심사하게 되며, 조례안에는 의원 비위 행위의 유형별로 구체적인 징계기준 등이 담겼다.

김유숙 의원의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회운영위가 심사하는 가운데 이 조례안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선물 수수 가액 범위 등 바뀐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됐다.

한편 의원 발의의 조례안 9건의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결은 오는 19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강승수 기자



의회 단신

치유농업으로 농업 새 미래 개척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1일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열린 치유농업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치유농업을 통한 농업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주문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포천2, 국민의힘) 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을 비롯해 권철희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농업기술원 내에 설치된 치유농원과 치유마루, 치유센터 실내교육장 등을 둘러보고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농민들과도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에 위치한 치유농업센터는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 광역치매센터 등과의 유관기관 연계, 체험운영 등 치유농업 거점기관으로 역할을 맡는다.

김 위원장은 "치유농업은 이제 단순히 도민여러분들께 먹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도민 건강회복과 유익하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업의 새로운 분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도의회에서도 치유농업 발전을 위해 제도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창 기자

광명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개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광명시의회가 12일 제280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오는 24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을 처리한다.

또한 시의회는 16일부터 오는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

는다.

안성환 의장은 "이번 회기에서는 다 양하고 중요한 안건을 다룬다"며 "시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것인 만큼 면밀히 심사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의회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은 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의회인터넷방송을 클릭하면 생방송으로 볼 수 있다.

박용석 기자



인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2023 청년포럼'은 지난 7일 워크숍을 가졌다. (사진=인천 계양구의회)

지역 현안 주제 '청년포럼' 워크숍 진행

인천 계양구의회 연구단체

인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2023 청년포럼'은 지난 7일 워크숍을 가졌다.

'2023 청년포럼'은 청년 중심으로 계양구 현안과 정책에 관해 토론 및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로 이날 워크숍에서는 여재만 대표 의원을 비롯한 청년 위원들과의 지역 현안을 주제로 한 자유 토론 및 청년 정책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환을 진행했다.

여재만 대표의원은 "청년들과의 참신한 아이디어 교류가 이뤄진 의미 있는 행사였으며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것이 청년 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해 정책 개선에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2023 청년포럼'은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정책에 반영해 계양구의 청년들에게 더 나은 지원과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송홍일 기자

일간경기
www.1gan.co.kr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뉴스체크 일간경기 모바일앱

**진짜
간편하네**

▶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검색창에 일간경기를 검색하신 후 앱을 다운로드 하세요 🔍